



미국메소포타미안협회의 데이빗 윌리엄 라자르 대표가 공개한 사진. IS는 기독교인의 집에 빨간 표시를 남긴 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연방법원 일부다처제 사실상 합법화

2013년 6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래 미국 연방법원이 드디어 일부다처제까지 허락하는 명령을 8월 27일 내렸다.

유타 주에 거주하는 코디 브라운 씨는 4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17명의 자녀를 낳았다. 사실상 일부다처 관계다. 그의 이런 삶은 TLC에서 Sister Wives란 제목의 리얼리티 쇼로 방송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여성들은 상호 합의 하에 한 남성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함께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러 명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중혼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브라운 씨가 TV에서 인기를 얻자 유타주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브라운 씨는 인근 네바다 주로 이주한 뒤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자신은 중혼(bigamy)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다처제(polygamy)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라운 씨는 한 여성과만 혼인신고했고 나머지 여성과는 동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인 간의 성관계는 사생활의 문제이며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2003년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의 판례를 들며 자신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

다는 것은 법원이 결혼 관계를 결혼 증명서에만 국한시키고 있으며 실제 부부 관계나 가정 구성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클락 워덤스 판사는 "중혼은 금지하지만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중혼은 금지, 일부다처는 허가"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브라운 씨는 몰몬교의 급진적 분파인 연합사도형제단(Apostolic United Brethren Church) 신도다. 과거 몰몬교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했지만 이것이 주법 및 연방법에 어긋나 감등을 겪자 1890년 이래로 이를 금지한 상태다. 그러나 몰몬교에서 갈라져 나온 급진적 분파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워덤스 판사는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브라운 씨의 일부다처 여부를 조사한 카운티 정부가 표현의 자유, 종교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주정부가 브라운 씨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연방법원이 지난해 12월의 판결을 재확인하며 최종 명령을 내리자 유타주 법무장관은 이 문제를 즉각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신 기자

“이라크 기독교 박해 반대”에 한 목소리

美 한인-앗시리안 기도하며 국제사회에 여론 조성

남가주 한인교계가 미주의 앗시리안들과 연대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홀로코스트”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약속했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이라크에서는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종교 청소(Religious Cleansing)란 명목으로 대규모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들까지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고 있으며 참수한 시신을 개방된 장소에 전시하거나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등 IS의 극악한 만행은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앗시리안 민족은 이라크 내에서 고대동방교회, 칼데아정교회 등 기독교를 믿는 소수민족으로 2003년 14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2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가히 대학살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8월 28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인교계 지도자 약 30여 명과 앗시리안 지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앗시리

안 지도자들은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박해는 이라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전혀 해법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앗시리안 지도자 중 한 명인 미국메소포타미안협회의 데이빗 윌리엄 라자르 대표는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UN 등이 함께 대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자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 내의 앗시리안들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이미 난민이 되어 버린 이들을 위해서는 생필품 등의 구호가 절실하다. 박효우 남가주교협 회장은 “이라크의 기독교 박해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한인교계와 앗시리안 커뮤니티의 협력에 다리가 된 인물은 티나 박 씨다. 그는 과거 최연소이자 한인 중 최초로 LA커뮤니티칼리지 교

육구에 이사로 당선됐던 여성 정치인이다. 그는 “앗시리안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도움을 청했을 때 가장 먼저 한인교회가 달려와 주었다”고 감사를 표한 후 “현지 앗시리안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박해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UN의 개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인권이 말살되는 고통을 겪던 중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이제 앗시리안들의 아픔을 나누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앗시리안들은 한국어 성경에서는 앗수르 민족으로 언급된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지역이 바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였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며 사도 도마를 통해 1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화 된 민족이기도 하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에브리데이교회 컴패션 모빌 체험행사
 Experiencing Compassion in Mobile!
CHANGE THE STORY
 THE COMPASSION EXPERIENCE
TAKE YOUR FAMILY ON A TRIP AROUND THE WORLD WITHOUT LEAVING TOWN.
 Reserve your spot at www.compassion.com/ChurchEveryday
 SEPTEMBER 12-15, 2014
신애라와 함께하는 Compassion Sunday!
 9월 14일
 주일 1부(8am)
 2부(9:30am)
 3부(11am)
 에브리데이교회 본당
Date: Sep 12 (Fri) ~ 15 (Mon) Place: Church Everyday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 818.832.6628
Fri Sep 12, 11:00 am - 7:40 pm / Sat Sep 13, 9:00 am - 6:40 pm / Sun Sep 14, 9:00 am - 6:40 pm / Mon Sep 15, 10:00 am - 6:40 pm

“کمپەشن의 사역, 百聞不如一見”

(백문 불여일견)

“현장 방문 못하는 이들을 위한 이동 전시관” 에브리데이교회에



کمپەشن이 운영하고 있는 کمپەشن 모빌 ©compassion.com

전 세계에서 가난과 폭력, 전쟁과 기근의 위협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헌신과 각오를 다지기에는 직접 그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에브리데이교회에 전시된 کمپەشن 모빌을 방문한다면 현장의 아픔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کمپەشن 모빌은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کمپەشن의 사역 현장을 대형 컨테이너 박스 안에 옮겨 놓은 구조물이다. 이곳은 시간적, 경제적, 물질

적, 건강 상의 이유로 کمپەشن의 해외 사역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کمپەشن이 제작한 이동 전시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체험관에서는 전세계 어린이들이 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کمپەشن의 후원을 받는 어린이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며 생활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미국에는 총 4대가 있는데 이번에 2대가 에브리데이교회를 방문하게 됐다.

에브리데이교회는 남가주 지역에서 کمپەشن 사역에 가장 열정적인 교회 중 하나다. 이 교회 성도들이 돕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무려 2천여 명에 달한다.

1대1 결연으로 현재 전세계 어린이 135만 명을 돕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کمپەشن은 1952년 한국 전쟁 당시 고아들의 참상을 목격한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시작됐다. 한국은 이때부터 41년간 کمپەشن의 도움으로 1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구호를 받았으며 2003년 11월 کمپەشن 한국지부가 설립되면서 “구호받던 나라”에서 “구호하는 나라”로 변화했다. کمپەشن과 다른 기독교 구호단체의 중요한 차이점은 کمپەشن은 구호와 함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 6200개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کمپەشن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12만 명의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1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14일 주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다.

▷ 교회 주소 :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김준형 기자



지난 제1차 새 사람 전인 치유 세미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새 사람(New Creation) 전인 치유 세미나

기독교적 전인 치유에 관한 세미나가 오는 9월 13일, 20일 GIFT상담치유연구원과 남가주사랑의교회 가정사역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난 3월 열린 제1차 <새 사람(New Creation) 전인 치유 세미나>의 경우 약 7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상담사역의 성경적 기초, 인간의 전인적 이해와 치유, 나의 과거는 진짜 과거인가, 변화와 치유의 3단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또 하 나님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사랑이란 등을 다룬다.

이 세미나의 참가비는 120달러인데 남가주사랑의교회 가정사역팀의 후원으로 40달러로 등록이 가능하며 선교사의 경우는 무료다. 한편, 이 세미나는 이 연구원 내 상담치유훈련 학교 과정 수강생에겐 필수 코스이

기도 하다. 강사 전달훈 박사는 이 연구원의 공동설립자이며 MIT대학과 UCLA 의대를 졸업하고 West LA Wadsworth 병원에서 병리학을, LAC-USC 대학 병원에서 내과와 소아과를 수련하고 UCLA 대학병원에서 알러지와 면역학을 공부했다. 이 외에도 Trinity College of Graduate Studies에서 관계심리학(Relationship Psychology)을, Talbot신학교에서 신학/영성훈련을 공부했다.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의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가주 사랑의교회 장로이기도 하다. 리더십 전 박사는 USC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다 바이올라대학교로 진학해 임상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다. ▷ 문의: 714-522-4438 김나래 기자

“쓸모없어 보이는 흉터, 하나님은 소망의 통로로 쓰셔”

8월의 마지막 주 미주평안교회에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라는 제목의 청년부 세미나 여름집회가 열렸다.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집회의 둘째날 저녁 7시에 청년들 앞에서 <지선이 사랑해>의 이지선 작가는 작은 체구와 여리고 고운 목소리로 자신에게 닮았던, 그 작은 몸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다.

스물셋 여대생의 고운 얼굴을 다시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자신의 얼굴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다.

“거울 앞에 설 용기가 생겼다.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차츰 이것을 받아들여지게 됐다. 안면화상 환자들은 기억 속의 자기 얼굴과 현실의

모습의 괴리감 때문에 자살시도를 꾀장히 많이 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던 중, 이 작가는 주님의 위로의 한 마디를 듣게 된다.

“병실에 있을 때 솔직히 예수님도 나보다는 덜 힘드셨을 거 같다는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던 중, 예수님도 아프셨지만 나처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고통과 두려움, 슬픔이 무엇인지 안다. 그 고통 안에 너와 함께 있었다고 하셨다. 그 말 한마디가 눈물을 닦아줬다. 수백억의 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의 한 마디였다. 자기연민으로 울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독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그중 자살을 하려던 사람으로부터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

다’는 편지를 받았다. 하나님은 쓸모없어 보이는 이 흉터를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쓰셨다.”

이 작가는 팬사인회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술하기 전 의사 선생님이 사람 꼴 안 될거라고, 세상에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다. 의사 말은 진리가 아니었다. 제 삶의 주인인 하나님, 제 인생이란 영화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얘기하는 자로 저를 세우셨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현재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자신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하는 말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킨다”고 덧붙였다. 한 주디 기자

우울증, 공황 및 불안 장애 세미나 열린다

터스틴제일침례교회(서병관 목사)에서 뇌정신건강세미나를 ABC상담대학교육원 주관으로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공황 및 불안장애, 우울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의 영향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정신과 전문의인 여천기 박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며 9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마다 오전 10시에 10주간 일정으로 열린다.

▷ 장소: 터스틴제일침례교회(1618 E. 17th st. Santa Ana, CA 92705) ▷ 문의: 714-836-5530

주사랑선교교회에서 찬양선교음악회

CCM과 워십음악이 기독교 음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찬송가를 더욱 보급하고자 하는 음악회가 오는 9월 28일 오후 7시 주사랑선교교회(17054 Bixby Ave. Bellflower, CA90706)에서 열린다. 2012년 10월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를 맞이한 찬양선교음악회에는 LA남성선교합

창단, LA레이디싱어즈, 보치 엘레스티, 소노리스 싱어즈, KAM 코랄과 소프라노 최정원 씨가 참여한다. 주 사랑선교교회 이재성 목사는 “찬송가를 보급하고 찬양사역자와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음악회다”라고 소개했다. 입장은 무료다. ▷ 문의 : 562-714-0691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DKHIS.Inc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KAKAO
TALK

213-500-4563
ID:DKHEALTH

P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의료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초과 혜택 분석, 인건비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나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특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 을 **저장 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특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옐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 0146629

이상훈 목사의 터키 선교여행 일기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2)

“아! 이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인구 99.9%가 모슬렘들이인 이슬람 나라에서 단 하루이지만 어떻게 기독교 사제에게 찾아와 축복기도를 받는 풍습이 생겼는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맞을 준비는 하고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쏟아지듯 밀려오는 터키인들을 보며 입이 벌여졌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산을 오르는 대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곧바로 내 앞에는 기도를 받기 위해 한 사람이 섰습니다. 그 뒤로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담임

었습니다.

“아! 이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중에 곳곳에서 찬양팀들의 찬양이 들려왔고, 전도팀들의 전도지 전하는 사역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300여 명의 세계 각국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증거 사역은 저녁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기도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배에 오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 등을 나누며 자리를 잡았는데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배 안에서 마지막 전체 기도와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보내시는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반색을 하며 마침 자기가 시리아 난민들의 자녀들을 약 25명쯤 가르치고 돌보는 보육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곳을 먼저 보여주고 국경도 자기 차로 가자 했습니다. 어느 허름한 골목길 낡은 5층 아파트 맨 윗층에 3 베드룸을 빌려 한 방은 프리스쿨 과정, 한 방은 초등학교 1-2년 과정, 다른 방은 초등 3-4년 과정으로 방이 좁아 더 아이들을 못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리아는 아랍어권이므로 터키어만 하는 패트릭 선교사는 아이들을 담당하지 못하여 쿠르드 아랍계 크리스천 청년들 4명이 자원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이들의 점심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도 점심을 나눠 주었습니다.

옥수수 스프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먹고 보니 남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부족한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많이 미안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울보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는 곳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경은 생각한 것보다는 철책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시리아 쪽에서 터키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몇 명 국경 너머로 보였습니다. 난민들이었습니다. 뉴스로만 들던 시리아 난민들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이들은 흑시나 자기의 가족들이 들어 올까 하는 마음으로 국경에 나와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시리아 정부군의 폭격으로 시리아 쪽 난민촌의 사람들이 여러 명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숙소로 오면서 패트릭 선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제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제 머릿속엔 그 두려움에 떨던 시리아 난민 가족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패트릭 선교사의 부인은 한국계 안순자 선교사이십니다. 그분들과 또 한국에서 파송받은 단기선교사 전보희, 홍은하 두 분과 함께 저녁을

한 후, 그들이 최근에 마련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는 한 길거리에 있는 4층 건물의 맨 위층으로 지난 주일에도 약 40명이 넘는 터키 현지인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저녁 터키의 영혼들, 시리아 난민들, 특히 더 비참하게 사는 난민여성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소수였지만 그 간절함만큼은 도시를 채우고도 남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지엔텨를 떠나기 위해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다가 한 낡은 병원 뜰 안에 있던 오래된 묘지를 찾았습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오스만 터키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순교한 미국 파송선교사님들의 묘소였습니다.

아! 그 당시 미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안 가신 곳이 없었구나 생각하며 미국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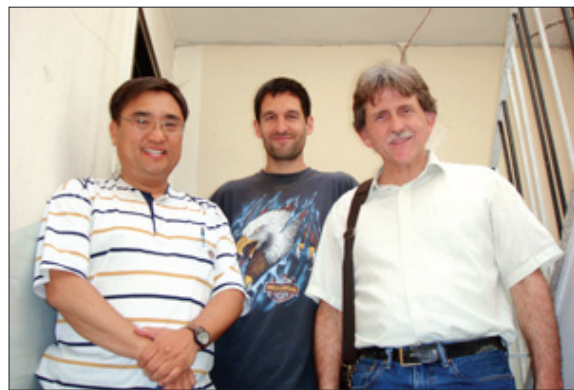
(계속)

그에게 기도제목을 물었습니다. 몸에 암이 있는데 병에서 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때 기도와 통역의 준비를 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짧은 복음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증거한 후에 그의 기도제목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도제목을 들었지만 가장 많은 제목은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기도, 자녀들의 진학과 건강 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낙담을 이기는 기도, 가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도 등이 주류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기도제목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시작된 기도가 오후 4시 30분경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와 같이 통역으로 기도를 하던 세 청년들(혜정,지영,예지)도 휴식도 갖지 못하며 참으로 열심히 기도 속으로 깊이 몰입하였습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 분이 또 있고, 끝나면 또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서 있는 그들이 마치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받으며 몸이 떨며 흐느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제목과 갖고 온 분들이 많

4월 24일 아침 이날부터는 실크웨이브 미션을 통해서 모인 미주팀들이 4개조로 나뉘어 터키 전역에, 특히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주를 중심으로 전도순례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티엔소속 피터 김 선교사와 터키의 남동부쪽으로 떠났습니다. 오전 비행기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비행하여 도착한 곳은 가지엔텨입니다. 가지엔텨는 최남단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엔텨는 인구 100만의 도시. 오히려 고대에는 실크로드의 주요 통로가 되어 동서남북을 잇는 매우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미국 WEC선교회의 패트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시리아 국경이요”라고 했습니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3개 구입시 \$180
4개 구입시 \$23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555
3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아이스버킷 챌린지신드롬...기독교인은 어떻게 봐야 하나

“선한 일의 모범” VS “비윤리적 치료법 개발 지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는 모습 ©Anthony Quintano/Flickr/Creative Commons

루게릭병으로 일컬어지는 ALS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유명인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면서 미국 교계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캠페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참여자가 스스로 얼음물을 끼얹은 후에 다음 도전자를 세 명 지목하고, 이렇게 지목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내에 자신도 얼음물을 끼얹거나 100달러를 이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ALS 협회(ALSA)에 기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SNS를 통해 뜻있는 일반인들 사이에 확산되어 온 이 캠페인은 유명인들이 동참하면서 전 세계로 알려졌다.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루게릭병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캠페인 원래의 의도나 목적보다는 유명인들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고 즐기며, 이들이 누구를 지목하는지에 더 관심이 쏠린 듯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한 시각도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먼저는 캠페인을 통해 많은 이들

이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되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인 크레이그 그로스(Craig Gross) 목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모범이 된다”며, “이 캠페인은 작은 개인이 어떻게 세상을 더욱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보여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위대하고 훌륭한 챔피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 한 명으로는 이 세상에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망한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가 큰 사역을 이끌거나 선교사가 되어 지구 반대편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고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의미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로스 목사는 “자기 머리에 얼음물을 쏟는 행동으로 ALS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불가능하다.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것처럼 작게 느껴질 수 있다”며, “그러나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와는 반대로 기독교인으로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는 ALSA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ALS 치료법 가운데는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형교회의 목회자인 내서니얼 킹(Nathanael King) 목사는 “나 역시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을 여러 번 받았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한 이들에게 감사한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 캠페인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ALSA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후원하고 있다며, “생명의 시작을 어느 단계로부터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배아 단계에서부터를 생명으로 본다”며, “ALSA를 후원하는 것은 이 연구를 후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킹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생명이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는다”며, ALS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ALS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며, “보다 윤리적인 치료법 개발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아 도울 것”을 권면했다.

한편, 킹 목사 외에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ALSA가 동물 실험이 동원된 연구를 후원하며, △물을 낭비하며, △ALS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퍼포먼스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英 기독교인들 신앙 감추도록 강요당하고 있어”

영국의 세속주의가 공격적 성향을 띠어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감추고 살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지 주요 정부 지도자가 우려를 표했다. 도미니 그리브 전 영국 법무상은 26일 현지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공격적 형태의 세속주의가 영국의 공공 영역에서 신앙을 밀어내고 있다”며 “자신이 믿는 바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냈다가 경고를 받거나 해고 당하는 등의 일

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예로 직장에서 심자가 목격이를 했던 한 기독교인이 이를 금지 당했던 사건을 들었다. 성공회 교인이기도 한 그리브 전 법무상은 “현대 영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선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강력한 힘”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내세우고 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모든 지혜를 독점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이 나라를 형성하는데 막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리브 전 법무상은 또한 “영국 정

치인들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적용하는 일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니 블레어 전 수상과의 대면인인 앨리스테어 캠벨이 “종교로 인해 유권자들을 잃지 않도록 종교적 신념을 정치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리브 전 법무상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에 기반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美 이라크 군사행동 확대에

교계 상반된 견해

일부 강력 요청 가운데 평화적 해결 목소리

미국 정부의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개입에 미 교계 지도자들이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가톨릭교 개신교 지도자 53명은 IS에 대한 미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중립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쓴 이 서한에서 이라크의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자들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극심한 고난이 국제사회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행동은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살상무기와 공습은 이라크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지 못한다”며, “이처럼 강대한 도전 앞에서 비록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라크에 대한 지원과 평화와 화해를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IS에 대항하기 위한 무력 대응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서한에 참여한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교황이 폭격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도자들은 특히 2011년 리비아에서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축출을 지원하며 가해진 미국의 군사개입이 더 큰 중국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폭격이 의미하는 것은 더 큰 분열과 유혈사태, 극단주의 세력의 활개, 폭력의 순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도자들의 견해는 앞서 미국의 이라크 공습을 찬성하며 소수종교인 보호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요

청한 지도자들의 견해와 상반된다. 8월 초 미국 보수주의 가톨릭과 복음주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50명은 “IS를 파괴하는 것만이 이라크에서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종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군사작전의 대대적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IS 세력을 근절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미국이 이끌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는 지난 8월 20일 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납치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하는 동영상 공개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습을 지속하고 이라크와 쿠르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가 이라크에서 소수종교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있으며, 여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납치, 고문, 성폭행, 노예화, 살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규탄해 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폴리의 참수 이후 미국이 시리아에 공습 역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28일 국가안보 회의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가능성은 배제할 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I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동국가들의 협력이 필요로 된다고, “IS는 폭력과 혼란을 초래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 이상의 이념 같은 것은 없다. 이들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정재호,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민규 편집국장: 맹 토머스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장: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 - 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5년 달력 할인행사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9월19일 까지 마감합니다.
빨리 주문 하셔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디자인의 달력을 준비하세요.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탐미디어에서 2015년 달력제작으로 귀 교회와 단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할인 품목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양질의 달력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기시는 교회와 단체위에 더욱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www.topmediausa.com

다양한 디자인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벽걸이형 \$ 2.75 부터 (100 Min)

탁상용 \$ 3.00 부터 (100 Min)

차량용 Special Price

● 달력뿐 아니라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 설교, 음악시디, 세미나, 신학교교재용 오디오북, 전도/홍보용 물티슈 각종 인쇄(명함, 카달로그, 주보, 헌금봉투, 각종 포스터, 현수막) 교회, 단체 로고 디자인, 실내외 차량용 사인, 티셔츠, 수건인쇄, 각종 판촉물)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성도의 헌금과 하나님과의 관계

고린도후서 8: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헌금의 정의(正義)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드려야 할 도리입니다. 내가 구원 얻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대속(代贖)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 같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기까지 복음전달(福音傳達)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생, 심지어 매를 맞거나 옥고(獄苦)를 치르기도 하고 더러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제물(祭物)이 된 신앙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거듭난 내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전도여행을 다니든가 아니면 헌금과 기도 후원으로 선교사의 후원을 하든가 해서 구원 얻은 자의 필수사명인 전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리며 주님 계신 하늘나라 소망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롬 14:7-8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심에 아멘 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고전 6:19-20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殿)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심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나라는 존재가 몽땅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지닌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일에 즐거움 마음으로 선(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소유물이니 내게 지니게 하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주님의 것으로 관리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루살렘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이 극한 가난과 시련 중에서도 힘에 겨움도록 많은 연보를 해서 도와 주었다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교회가 1년 전부터 연보(捐補)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디도 일행을 통해 이번엔 실현해 달라고 즉 작정 헌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2. 마케도냐 교회들의 섬김의 본

빌립보교회는 두아디라 사람으로 자주장사하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바울사도의 일행과 루디아의 헌신적인 전도로 영적인 부흥과 선교에 힘써 바울사도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도 선교비 지원을 했고,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울 때에도 두 차례 선교헌금을 보내 왔으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라디도 편에 선교비 기금을 보내 왔는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사도가 세 이레 동안 전도하다가 그곳 유대인들의 행포(行暴)로 쫓겨났는데(행 17:1-10참조) 살전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분이 되었다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정도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모범이 된 교회로 성숙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교회가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과정에는 바울사도로부터 받은 정통(正統)한 복음과 빌립보교회에서 몇 차례 재정지원(財政支援)과 기도후원(祈禱後援)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 오늘날 역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사역에 여러 교회나 성도들의 기도 및 재정지원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며 훼방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텐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빌립보교회는 사도바울에 의해 세워졌고 바른 신앙으로 양육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세계선교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데살로니가교회도 더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신앙애(信望愛)의 균형잡힌 신앙으로 모범교회가 되었고, 베뢰아교회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지한 열정으로 성경공부를 하며 신앙인격과 성품이 신사적인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예루살렘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힘에 겨움도록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케도냐교회들이 진리정통(真理正統)하고 성령충만하여 선교사명이 불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3. 성도의 헌금과 하나님과의 관계

미국의 어느 흑인교회에서 선교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선교로 구원 얻은 성도들과 성령받은 교회의 필수적 사명이라

시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추수(靈魂秋收)가 시급한 이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유희와 쾌락의 길을 달리지 말고 다 같이 복음 들고 선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했을 때 신도 중 몇 분이 “Let’s go!”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때가 급하여 복음을 들고 걸어야 할 여유가 없다고 하니 청중이 다 “Let’s run!” 하면서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걸어가거나 달려간다고 해도 주님 재림 전에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다 복음을 전하자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 다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역시 “Let’s fly!”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기업경영(企業經營)이나 직장에 매여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 터어주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선교헌금(Mission Offering)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 형편이 나아 보이는 어느 장로님께 “Elder, I know you are able to give. how much are you willing to offer?(장로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를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했더니 “Yes, I can do it, but not now. Wait until later(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더군요. 이 같은 상황을 보면 교회에서 남들이 지원해 주는 선교비로 선교여행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았으나 정작 선교확장을 위하여 선교사에게 재정지원을 하라고 할 때 모두가 움추리고 주머니를 닫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떠했는지 기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치셨고, 오늘 우리로 천국소망을 얻게 해 주려고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목숨까지 바쳐 희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투철한 의지로 투자와 희생을 각

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Why do you obey and sacrifice yourself to the word of Jesus? (왜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復從)하여 스스로를 희생(犧牲)하느냐)고 물었을 때 I do that because He is my Lord, of course.(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까?

헌금은 희생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복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으로 사는 신도는 아까워서 드릴 수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라면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섬기는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더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모든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 드리고 몸부림 친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도 주께서 내게 생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덕분이며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도 주께서 내게 맡겨 놓으신 것이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기회가 왔을 때 지체없이 선용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할 때 청지기 사명 잘 감당했다며 선한 청지기상을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딤후 6:10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思慕)하는 자들이 미혹(迷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하셨으며 딤후 6:17-19에서는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厚)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복락(永生福樂)을 위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삼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화요일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p> <p>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F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화)</p> <p>-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사학사학한단고,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p> <p>*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p> <p>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p>
<p>코현대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edu www.chongshinusu.edu</p>	<p>미주성결대학교</p> <p>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us</p>

반주자 청빙

자 격: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info@sunhanchurch.com
문 의: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포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풀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몇 주 전 교회학교 문제로 한인 사회에서 잘 알려진 한 교육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다. 평소 신문에 교육에 관한 글을 많이 쓰는 이 분이 우리 교회 한글학교를 섬기는 한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초대하셨는데 이 바쁘신 분이 권사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것이었다.

이 분과 우리는 한글학교에 대해서 한 시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분의 교육에의 열정과 경륜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분이 툭툭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에서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이다”라는 말씀에 큰 공감을 하면서 주일학교 및 장년 훈련 과정에서의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분이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말씀을 한 배경은 한글학교를 비롯하여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선정할 때, 단순히 누가 교사를 하고 싶단지 아니면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타고난 의식과 열정이 있는 분들을 교사로 선정해야 하고 그런 후 그런 교사들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최대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

교사는 영원하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다는 의미에서였다.

예를 들면, 한글학교의 경우 막연하게 조금 젊은 청년 대학생 중에 한국말을 잘 하는 교사를 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영어가 좀 서툰고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과거 교직에 몸 담았던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었다.

한 번 교사를 했던 분들은 비록 교직을 은퇴하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해도 그들 속에 교사의 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록 아이들 문화에 익숙치 않더라도 교사의 열을 지니고 있는 경륜있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이해하는 젊은 청년들이 함께 교사를 하면 가장 최선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귀가 번쩍 뜨이

는 듯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민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영어로 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대부분 1.5세, 2세대만 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 분의 말씀은 교육은 말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 즉 교사의 열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펄쩍 스쳐가는 생각 중 하나는 ‘교회 안의 교사들을 소중히 존경하고 위하는 일에 너무 소홀했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영어를 하고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젊은 교사들과 또 오랫동안 장년 성경공부를 인도해 오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떻게든 좀 더 감사하고 격려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교회 안에 이런 교사의 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 속에 몇몇 분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스스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왠지 교사의 열이 묻어있는 그런 얼굴들이었다.

이런 분들에게 있는 교사의 열에 어떻게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됐다. 교사의 열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겠다.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이기 때문이다.

좋은 이야기가 많은 교회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심방하는 일을 즐겨드립니다. 심방을 한 번 다녀오면 그 가정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필요를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다섯 가정을 심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은 남편이 사경을 헤매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 집에 돌아와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갑자기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떨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지는 불상사를 당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가정을 정성껏 도와주셨습니다. 아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돌볼 수 없을 때에 그 권사님이 오셔서 온갖 갖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의 심방을 마치고 다른 가정에 들렀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 가정에서도 자기들을 도와주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문에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연관된 여러 얼굴들도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도움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선행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들은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고마워하고 감사드릴 뿐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갈 6:10). 믿음의 가정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일부러 기회를 엿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보낸 휴가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한 숲속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레이크 타호에서 좀 떨어진 곳의 자그마한 규모의 에메랄드 호수는 너무도 아름다워 떠나고 싶지가 않았다. 정말 다채로운 경관이며 온 가족의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자녀들 개개인들이 그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부담없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형제 간에 계속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도록 하며, 먼저 배울고 그리고 섬세한 일이 있어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늙어가는 부모는 어떤 기약을 할 수 없기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효도의 길이라는 부모의 마음도 전했다.

여행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오는데 유난히 결혼 사진이 크게 보인다. 50여년 전 새파란 남녀가 100년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서약하고 찍은 사진이다. 6.25 전쟁 후 폐허 위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던 시절, 가난에서 오직 사랑과 희망 그리고 근면으로 역세게, 자는 시간을 쪼여 가면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힘차게 살아온 여정이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캘리포니아에 세 자녀들과 이웃해서 같이 산다는 행복감은 결혼 사진을 찍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꿈같은 일이다. 가능한 자녀들과 같이 여행의 기회를 자주 만들리라.

의 직장에 피해가 없도록 여행 계획을 짜고 하이킹을 하거나 보트를 타면서 킬킬거리며 끈끈한 형제의 정을 쌓아 가는 모습이나, 손자 손녀들이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같이 즐기는 시간은 너무도 흐뭇했다. 두 번째는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다. 우리 시대는 되도록이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진을 찍고 돌아와서 자랑하는 것이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만든 스케줄은 너무도 좋았다. 집 한 채를 며칠 동안 렌트하고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는 그 집에 돌아와 차 마시며, 책 보고, 게임하고, 떠들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낮에는 케이블카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 조각된 돌산의 절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

집을 떠나 멀리 간다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이다. 반복되는 일상 생활을 벗어나는 자체가 해방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 버리는 기회가 아닌가 싶다. 우리 부부는 4박 5일의 여정으로 세계적인 관광지인 레이크 타호를 세 자녀들의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다녀왔다.

자녀들이 내 슬하에 있을 때 다니던 여행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다. 그동안 자녀들로부터 같이 여행 가자는 제의를 받았지만 번번히 사양했었다.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여행에 늙은 부모가 따라가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번에는 우리 부부가 선수를 쳤다. 금년에는 세 남매 가족과 우리가 다 같이 휴가를 가도록 하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으니 너희들은 시간, 장소 그리고 스케줄을 짜라고 전했다. 더 늙어지기 전에 건강하게 언덕을 오르내리고 차를 몇 시간씩 탈 수 있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때 가자는 생각도 있었고, 또 손자 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모에게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그 기대는 맞아 떨어졌다. 첫 번째는 형제끼리 서로 협동해서 자기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발작을 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정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영(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는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창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9

성인 3명중 1명은 혈관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혈관질환은 중풍(뇌졸중),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을 비롯하여 피부염, 여드름, 생리이상 등으로 모두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을때 생기는 병들입니다. 피가 깨끗해서 몸에 있는 혈관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피가 잘 공급이되면 건강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피가 운반해주는 영양소와 물, 산소를 통해 성장하므로 혈액이 오염되면 세포가 활력을 잃고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은 피가 오염돼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때 피 검사만으로 암을 비롯해 상당수의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혈액오염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신체의 모든 곳과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뇌에, 눈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눈에, 심장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심장에 병이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심장, 간장, 폐, 신장, 비장 등이 있고, 심장이 좋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입술, 손, 발, 다리가 차가워지고 색깔도 파랗게 변하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적당한 양을 공급해주는 저장창고 역할을 합니다. 폐는 숨을 쉬어 혈액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혈액 정정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장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시켜 건강한 혈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신장은 사구체라는 필터를 통해 불필요한 노폐물은 걸러내고 쓸만한 혈액만을 재활용하는 것인데, 신장의 역할에 따라 혈액이 1급수, 2급수, 3급수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어떻게 하면 깨끗한 혈액과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질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때,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사사 "이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암몬족속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곤경에 빠졌는데, 암몬족속과 싸울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들이 기생의 아들이라며 쫓아내었던 "이다"를 다시 찾아서 도와줄것을 요청하였고, 이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되었지만, 이다는 자신의 말 실수로 인하여 무남독녀인 딸을 잃게되었습니다. 사사기 10장11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나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되어서 이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이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리하여 이다는 장군이 되어서 암몬족속을 물리치게 되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의 실수로 인하여서 귀중한 딸을 잃게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반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때 이다의 딸이 첫번째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약속했던대로 그딸을 반제로 드렸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시 건강한 혈액 만들기 결론으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흡수하면 1-2주 안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이시간에 강력한 유기농 혈액 개선제를 소개합니다.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 M3, 무료건강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머사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로리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드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770.457.1717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옥한흠 목사 추모사업 ‘은보주간’ 제정

기념사업회 주최 기념예배 및 제2회 은보상 시상식 열려



은보상 시상식 이후 (꽃다발을 든) 수상 교회 담임목사 내외와 은보 옥한흠 목사 기념사업회 관계자 및 순서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고(故) 옥한흠 목사의 4주기를 하루 앞두고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 기념사업회가 기념예배 및 제2회 은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 기념사업회는 올해부터 9월 첫째 주를 ‘은보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1일 오전 10시부터 은보주간 기념예배를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진행했다. 600석 규모의 사랑아트홀은 이날 고 옥한흠 목사를 추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은보상 시상식에 앞서 상영된 고 옥한흠 목사를 추모하는 영상물은 생전의 고인이 성도들과 제자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의교회 초창기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도 했다.

영상에서는 “사랑의교회 초창기에 제자훈련은 많은 치유와 변화의 능력을 일으켰다”고 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되는 일이 많아, 아내들이 자신들의 남편들을 제자훈련에 많이 데려왔다”는 것이다.

한 목회자는 “남편들이 ‘여기 오지 않으면 가정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왔다’며 제자훈련에 참여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김상철 감독이 제작한 ‘제자, 옥한흠’ 다큐멘터리 영화가 6분 가량 소개되기도 했다. 김 감독은 “90분 분량의 이 영화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극장에서 개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교회 부문에 모자이크교회(담임 정갑준 목사), 삼산교회(담임 최학무 목사), 하늘평안교회(담임 오생락 목사)가 수상했으며 학술부분은 수상자가 없이 진행됐다.

은보 옥한흠 목사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한인권 장로는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자훈련의 목회철학을 갖고 목회한 건강한 교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담임목사의 제자훈련 목회철학 및 인격, 현장 보고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해 전

북 전주, 고성, 강원도 춘천에서 한 교회씩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자이크교회는 전도집회가 강한 교회로, 삼산교회는 농촌교회이며 경로잔치를 포함해 농촌목회자 세미나를 특징으로, 하늘평안교회는 강원도 지역에서 칼넷(CAL-NET) 세미나를 하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농촌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삼산교회 최학무 담임목사는 “도시 교회에서 농촌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열어 주시는데 갔다 오면 괴리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부부들이 너무 좋아 하셨다”고 강조했다.

하늘평안교회 오생락 목사는 “칼넷 모임은 강원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를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 또 제자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을 확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제자훈련을 안했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모임에 참여하며)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수상 교회에는 2천 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은보주간 기념예배는 한태수 목사(은평성결교회, CAL-NET 이사)의 사회로, 박정식 목사(인천 은혜의교회, CAL-NET 이사)가 기도, 임종구 목사(대구 푸른초장교회, CAL-NET 사무총장)가 성경봉독,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은보 옥한흠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가 설교,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 CAL-NET 고문)가 축도했다.

오상아 기자

예장 합동-통합 각각 총회 설립 102주년 기념예배



예장 통합 102주년 예배에서 정영택 목사부총회장의 집례로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다.

예장 합동과 통합이 총회 설립 102주년을 맞아 각각 기념예배를 드렸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 설립 102주년 기념예배는 1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기념패 수여식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는 김영남 목사(서기)의 사회, 김신길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김정훈 목사(부회록서기)의 성경봉독, 안명환 총회장의 설교, 이성택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믿음을 선택한 성도들”(엡 2:4-10)을 제목으로 설교한 안명환 총회장은 “총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며 “역사 속에서 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총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자리”라며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지켜 온 신앙, 이제 우리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갖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기념패 수여식에선 서울·서북지역 대표 승동교회(경기노회), 호남·중부지역 대표 장흥중앙교회(목포서노회), 영남지역 대표 초량교회(부산노회)를 비롯해 총회 산하 100년 이상 된 노회와 속회 및 연합교회, 소래교회가 각각 기념패를 받았다.

수상자 대표로 감사인사를 전한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는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려사를 한 이성택 목사(증경총회장은) “우리 교단을 향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다 의롭고 정결해지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교단이 되자

는 것”이라며 “그래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보이는 총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 창립 102주년 기념예배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김동엽 총회장은 ‘예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삼상 7:12-14)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블레셋 침공으로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며 “이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 개입으로 인한 것으로, 이 은혜를 되새기며 지경을 회복하는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수적으로는 놀랍도록 부흥 성장했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교회들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몇몇 지도자들은 타의 모범이 되는 커녕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로 복음 전파의 문이 닫혀만 가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최기학 목사(총회 서기)의 사회, 박기철 목사(총회 회록서기)의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낭독, 김철모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이장연 장로(총회 회계)의 성경봉독, 한국장로성서학단의 찬양, 설교, 정영택 목사(부총회장)가 집례한 성찬식, 김학란 장로(총회 부회계)의 봉헌기도, 남택률 목사(총회 부서기)의 총회연혁 낭독, 김동엽 목사의 표창 및 사령장 수여, 총회가 제창, 김동엽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표창은 20년 근속한 교육자원부 김치성 총무, 사회봉사부 고은숙 과장대우, 미국장로교한국국교회 임진순 대리가 받았다. 이 외에 승진자 26인이 사령장을 받았다. 류재광 기자

“청소년들, 이타주의 행하는 섬김의 리더로 성장해야”

기아대책, 한통청소년봉사단 2기 발대식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이성민)은 지난달 30일 한양대 ITBT 센터 강당에서 나눔과 봉사로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한통청소년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통청소년봉사단(이하 한청봉)은 대학진학과 이를 위한 과외 수업으로 메말라가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섬김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고생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3년 1기 120여 명의 학생들은 ‘비전특강’을 듣고 국내외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는 등 적극 참여했다.

지난 6월 1기 해단식 이후 한청봉 2기를 모집, 1기보다 40여 명 늘어난 160여 명이 1년 동안 활동하게 됐다. 2대1의 경쟁을 뚫고 2기에 선발된 단원들은 국내 대표 광고전문가인 제일기획 김홍탁 마스터, 마술사 이은결,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문일 교수,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등 매월 1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비전특강을 듣고 국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다.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대학생 멘토 12명은 대학생 봉사동아리 아이섹(AIESEC) 소속으로, 2기 단원들을 그룹별로 맡아 지도한다. 1년의 힘든 봉사활동 일정을 경험하고도 1기 수료 학생 중 20여 명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 2기에 다시 지원했다.

신성중학교 곽수빈 학생은 “1기 때의 많은 활동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감도 상승했다”며 2기에도 도전했다.

대전 관저중 허재영 학생은 월 2회 대전에서 서울을 왕복하면서 한통청소년봉사단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선발되기도 했다.

이대부중 성은총 학생의 아버지는 “일 년 동안 꾸준한 활동으로 봉사를 몸에 익히고 넓은 시야를 가져, 평생 봉사한다는 삶의 목표를 갖게 되길 기대하며 (자녀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청봉 단장 김영걸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는 “대학진학과 이를 위한 스펙만 강조하던 것을 떠나 활발한 경험으로 열린 사고와 더 큰 비전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우월의식과 이기심이 아닌 이타주의와 폭넓은 사고를 가진 섬김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통청소년봉사단 2기를 위해 포스코, SK텔레콤, 기업은행, CJ그룹, 유진그룹, 매일유업, 이브자리, 대웅제약, 한솔교육 등 국내 각 산업의 대표 기업들도 후원에 참여했다.

이동윤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힐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뉴욕감리교회의 대륙별 선교 이민교회 선교 패러다임 바꾼다



2012년 제1회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강원근 목사가 부임한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선교대회는 성도들의 세계선교를 향한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해외선교에 적극적인 이민교회로 평가받아 온 뉴욕감리교회(담임 강원근 목사)가 최근 '대륙별 선교'를 도입,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등 이민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또 한 차례 탈바꿈하고 있다.

뉴욕감리교회의 '대륙별 선교'는 강원근 목사가 부임한 이후 각 대륙별로 도움이 절실한 선교지를 하나씩 정해 단기선교 파송과 물질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선교지 선택과 지원이 모두 성도들이 중심이 돼 이뤄지고 있다.

뉴욕감리교회의 대륙별 선교지는 현재 남아메리카는 페루, 아시아는 스리랑카, 유럽은 러시아 등으로 결정돼 있으며 아프리카는 현재 에디오피아를 비롯해 2-3군데 후보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뉴욕감리교회는 또 대륙별 선교지는 아니지만 현재 북한 선교와 미국내 선교에도 나서고 있다.

뉴욕감리교회는 그동안 남미 파라과이 지역에 매년 20만 불의 예산을 들여 선교활동을 해왔다. 개교회가 펼치는 선교로는 뉴욕-뉴저지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예산으로 파라과이 선교에 집중했고 그동안의 선교활동과 지원도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

지금 도입된 '대륙별 선교'는 선교영역 확장과 보다 더 효율적인 선교의 필요성을 느낀 뉴욕감리교회가 과감한 선교 체질개선에 나선 것으로, 뉴욕감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대륙별 선교'가 도입되자 뉴욕감리교회 성도들은 먼저 대륙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선교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현지 방문팀을 보내 직접 현장을 돌아보게 했다. 꼼꼼한 검토 끝에 도움이 꼭 필요한 선교지 하나를 선택해 선교에 집중했고,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자체적인 모금과 선발로 담당하고 있다. 간혹 교육관 건립 등의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뉴욕감리교회가 이를 맡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선교지에서

도 눈에 띄는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 남미 페루의 경우 '이카'라는 지역을 선교지로 정했는데 사막 가운데서 전기도 없이 천막을 치고 사역하는 현장을 돕기로 하고, 현재 벌써 수만 불의 헌금을 보내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현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이나 약물에 중독됐던 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선교사를 만나게 됐고 이 지역은 뉴욕감리교회 아시아대륙 선교위원회가 전적으로 돕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고려인 선교를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각 대륙별로 위원회가 구성돼 활발한 선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륙별 선교'에 성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정서가 형성되도록 사전 노력도 있었다. 뉴욕감리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선교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선교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뉴욕감리교회를 방문해 선교지에서의 놀라운 역사와 눈물의 간증을 전했다. 지난해까지 2회째 치러진 선교대회는 세계선교를 향한 뉴욕감리교회 성도들의 시각을 넓히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선교대회 때 많은 선교사들을 초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담임 강원근 목사가 예일대학교 재학시절 OMSC 선교센터와 자주 교류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당시 강원근 목사는 개인적으로 조난당 봉크 박사와도 친분을 맺었고 이것이 뉴욕감리교회가 선교대회를 열고 OMSC 선교사들을 초빙해 세계선교의 시각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욕감리교회는 전 세계 대륙별로 모두 선교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대륙별로 선교를 진행한 결과 5개 대륙의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했고 앞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선교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근 목사는 "선교의 제1선은 모슬렘 국가와 이스라엘, 북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제2선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다. 남미 등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은 선교의 3선으로 생각하고 대륙별 선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디딤돌선교회 주최 노숙자 선교 후원 음악회 성료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선교 후원 음악회가 열렸다.

애틀랜타 지역 노숙자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음악회가 24일(주일) 오후 5시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개최됐다.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가 주최한 이날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최지선, 바리톤 이재식, 소프라노 전주원, JS 앙상블, 기독교성향창단 등의 음악가들이 나서 수준 높은 연주를 펼쳤으며 노숙자 합창단의 찬양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특별히 최근 구입한 노숙자 선교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기도와 후원을 당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백크헤드 지역에 위치한 노숙자 선교센터는

초등학교로 사용되다 몇 년 전부터 데이케어 센터로 사용되던 건물로 1.5에이커의 땅에 15,000SF 규모이다.

송요셉 목사는 "저는 오늘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환상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불품 사납고 악취 나는 노숙자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센터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센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동참을 호소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현희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32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양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기쁨,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6기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역물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넷 전방)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aiholy@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초.진신의 흠뻑, 버림교회인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화를 이루고, 이면이세를 책임지며, 이면이정신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혼을 순종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미션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ucus.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연합세례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e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련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래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부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 감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최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특별양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일양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스채플)
오류 12:00 (분양)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6:00 (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밴 구입 골프대회 열려

한인단체 대표 및 평신도들의 성원 이어져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밴 구입을 위한 골프대회가 27일 클리어뷰 파크 골프장에서 개최, 목회자들과 한인단체 및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27일 클리어뷰 파크 골프장에서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최창섭 목사) 밴 구입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뉴욕교협이 청소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자 모집에 나선데다 뉴욕 교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인 단체장과 평신도들도 함께 참여한 의미있는 대회였다.

한인단체에서는 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 퀸즈한인회 류제봉 회장, 미주평통 김기철 부의장 등을 비롯해 직능단체와 향우회에서도 적극 참석해 모처럼 뉴욕교협과 한인단체가 선한 목적을 위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인단체들의 참여는 평소 이들과 자주 교류를 갖고 있던 우병만 목사가 적극 주선했다.

이날 참석한 90여 명의 참가자들은 18홀(70타) 라운딩, 근접대회, 장타대회 등의 경기에 임했으며 목회자들과 사모, 한인단체 대표, 평신도 등이 직분과 남녀노

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스포츠를 통해 교제하며 유쾌한 분위기 가운데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 챔피언은 총 70타를 친 김영진 씨가 차지했으며 경쟁이 치열했던 남자부 1등은 김연규 목사, 2등은 김천표 목사, 3등은 정재균 목사, 김준남 목사였다. 여자부 1등은 김나연 씨, 시니어 1등은 김용길 신부, 신현택 목사였다.

또 근접상은 박용광 씨, 장타상은 박동인 씨가 차지했다. 경품추첨에서 아주여 행사측이 제공한 한국행 티켓은 진창엽 씨가 당첨되어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뉴욕교협의 새 회관에 함께 입주하는 청소년센터에 보다 쉽게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밴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었다.

뉴욕교협은 최근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에 위치한 회관을 매각하고 리틀넥 더 글라스튼 근방에 새 회관을 얻어 오는 12월 입주한다.

김대원 기자

PCUSA 서북미 여성교회 찬양의 밤 열린다



서북미 여성교회 찬양의 밤 자료사진

미국장로교(PCUSA)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KPC) 회장 이경호 목사) 여성교회연합회는 오는 9월 6일(토) 오후 6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에서 '제13회 서북미 여성교회 찬양의 밤'을 개최한다.

서북미 여성교회 찬양의 밤은 서북미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여성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교제를 나누며 선교를 향해 도전하는 시간이다. 또한 찬양

의 밤 헌금과 비빔밥 세일로 마련된 기금을 여성 사역자들의 장학금과 선교기금으로 사용하는 뜻 깊은 모임이다.

제13회 서북미 여성교회 찬양의 밤
일시 : 9월 6일(토) 오후 6시
장소 :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98499
문의 : 253-589-8900
김 브라이언 기자

시애틀 빌립보장로교회 설립 30주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시애틀 빌립보장로교회(담임 최인근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시애틀 빌립보장로교회는 오는 9월 14일 오후 4시 설립 30주년 감사예배와 최인근 목사의 신간 "자유하리" 출판기념회를 함께 갖는다.

'기도의 이론과 실제', '삶이 아름다운 사람', '삼겹살의 사랑'에 이은 최인근 목사의 신간 "자유하리"는 최 목사의 40년 이민 목회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 기록한, 생생한 이민목회 지침서와 같다.

최 목사는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시애틀 모든 목회자들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초대말을 전했다.

최인근 목사는 이어 "설립 3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돌리고 주위의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위해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대다수 한인 교민들이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

고 있는데 이들에게 의지할 분이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84년 9월 2일 최인근 목사와 67정이 학교 교실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시애틀 빌립보장로교회는 성장을 거듭해 1993년에는 현 성전 건물을 완공하고 입당했다.

1999년에는 서부아프리카 기니(김진봉, 정순영 선교사), 2004년에는 중앙아시아 몽골(김홍권, 권설 선교사), 2009년에는 태국(하홍중, 이혜정 선교사)으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다.

한편 최인근 목사는 고신대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와 필라델피아 소재 페이스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 노회장과 시애틀 목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시애틀 기독교연합회장, 예배회복운동 나이스크 서북미본부장과 워싱턴신학대학장을 맡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우리가 시애틀 부흥의 주인공”

2014 Rise 청소년 찬양집회

크리스천 청소년 대상, 9월 6일 오후 7시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 라이즈 청소년 찬양집회 자료 사진

개학을 앞둔 영어권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집회 “Rise”가 오는 9월 6일(토) 오후 6시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담임 장윤기 목사)에서 열린다.

라이즈 찬양 집회는 시애틀 각 지역에서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찬양집회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다. 또한 라이즈는 개학 후 각 학교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모임으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군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한인 1.5세, 2세 크리스천 청년들은 라이즈를 바탕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미국 학교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국과 한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라이즈 강사로는 시애틀 형제교회 클라라 김 전도사, 워싱턴 리더로는 제니퍼 문이 나서서 집회를 인도한다. 집회는 시

애틀 형제교회,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뉴비전교회, 시애틀 비전교회, 온누리교회, 은혜장로교회, 별부사랑의교회 등이 준비하며 시애틀 전 지역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매튜 윤 목사(뉴비전교회 EM)는 “라이즈는 기독교의 의미가 퇴색되는 미국에서, 차세대 한인 크리스천 리더들이 연합하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 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은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오는 회개와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목사는 또 “앞으로 한인 청소년들이 미 주류사회로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드러낼 텐데, 이들의 기도와 복음의 삶이 미국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면서 찬양집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김 브라이언 기자

소명 받은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자기 자신

뉴올리언스 신학대학원(NOBS) 총장 닥터 찰스 캘리 목사가 한국어 부(KTI, 디렉터 최봉수 목사) 채플시간을 통해 한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당부했다.



NOBS 한국어부 채플을 방문해 말씀을 전한 닥터 찰스 캘리 총장

한국어부 둘루스 캠퍼스인 둘루스제일침례교회에서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채플에서 찰스 캘리 총장은 “카트리나 참극을 통해 학교 전체가 피해를 입을 만큼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한국어부가 애를 태우면서 시작되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다음 기도응답으로 한인사회 중심부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세우게 하셨다”고 운을 뗐다.

항상 한국어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국인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 기금 마련을 구한다면서 함께 기도해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캘리 총장은 지난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를 본문으로 삼아 자신의 간증과 당부를 나눴다.

무슨 강의를 하든 자신이 담당하는 모든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꼭 외우게 한다는 캘리 총장은 “여기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소명을 받은 이들이기에 이제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된다. 그 위험은 교회 집사나 장로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난롯불이 처음엔 뜨거워 다가갈 수 없다가도 장작을 계속 넣지 않

으면 결국엔 그 불이 식어지는 것처럼, 지금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계속 연료를 공급해 줘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의 장인 어른은 나의 젊은 시절 영적인 영웅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받은 유명한 설교가이며 사역자였다. 나는 그분만큼 사람들과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열정이 있으셨고, 지금도 그분의 설교와 사역에 감명을 받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쓰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난롯불에 장작을 넣는 일을 어느 순간 멈췄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며 그것을 깨달았고, 조목조목 적은 뒤 그에게 잘못된 상태에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 했지만 그는 본인의 사역과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없으며 하던 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 왔고 가족들은 그로 인해 아픔을 겪었다”라고 했다.

18년 반이라는 긴 세월의 방황 끝에 돌아온 캘리 총장의 장인은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받아들임, 은혜를 체험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기에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안타깝게 통곡한다고 덧붙였다.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밀어 내버린다. 죄의 유혹과 바쁜 삶의 일정, 집에서 우는 아기, 풋볼과 취미활동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방향과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밀어 부쳐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하던지 나는 관심이 없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불길에 장작 넣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희 기자

조지아 어머니학교, 19일부터 21일까지 새한교회에서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며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에서 열린다. 일정은 19일(금) 오후 6시~10시, 20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30분, 오후 5시~9시 30분, 21일(주일) 오후 5시~9시 30분이며, ‘성경

적 여성상’, ‘아내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등의 주제강의가 진행된다. 두란노 어머니학교는 21세기 한국의 위기는 아버지의 부재와 더불어 어머니의 정체성 위기라는 인식 아래 아버지를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아버지학교 운동에 발맞춰 시작됐다. 등록비는 120불(교재 및 식사 포함), 문의는 678-862-2955, 404-992-2719, gamotherschool@yahoo.com

박현희 기자

O.C./앨버틴 지역

<p>오병익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p> <p>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p>	<p>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름(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김영길 담임목사</p> <p>금요찬양 오후 7:3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p> <p>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p> <p>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p> <p>민경업 담임목사</p> <p>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아지는 교회</p> <p>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p> <p>허규암 담임목사</p> <p>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p> <p>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p>
<p>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p> <p>박용덕 담임목사</p> <p>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p>	<p>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p> <p>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p> <p>허규암 담임목사</p> <p>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p> <p>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7 / usa8291@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p> <p>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이서 담임목사</p> <p>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p> <p>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김한요 담임목사</p> <p>베델한인교회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복) 금요일 오후 7시(계시복 7교회)</p> <p>남상국 담임목사</p> <p>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p> <p>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 obchurch7@gmail.com</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0:00(FC제출) 오전 12:3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 6:00(토)</p> <p>김민재 담임목사</p> <p>세리토스장로교회</p> <p>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분당) T. 562-677-7777 / F. 562-677-7778 / ilovecp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p> <p>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아예배(수) 오후 7:30 성령집회(매월 둘째 금) 오후 7:30</p> <p>김상도 목사</p> <p>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p> <p>앨버틴 할렐루야교회</p> <p>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p>	<p>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전 7:30 오전 9:00</p> <p>지사론 담임목사</p> <p>(매월 S.D.F, Power minister)</p> <p>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p> <p>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p>
<p>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p> <p>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p> <p>우대권 담임목사</p> <p>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p> <p>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p>	<p>주일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p> <p>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초등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p> <p>염영민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p> <p>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p>
<p>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p> <p>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p> <p>최국현 담임목사</p> <p>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담전문</p> <p>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562) 475-4323(Church)</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월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7:30</p> <p>한기홍 담임목사</p> <p>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남성수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p> <p>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p> <p>주혁로 담임목사</p> <p>주님의 빛 교회</p> <p>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p>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김철민 장로</p> <p>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토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p> <p>앤드류 김 담임목사</p> <p>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p> <p>18842 Teller Ave. Irvine, CA 9261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p>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이터링 tv 초고속인터넷, 방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기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기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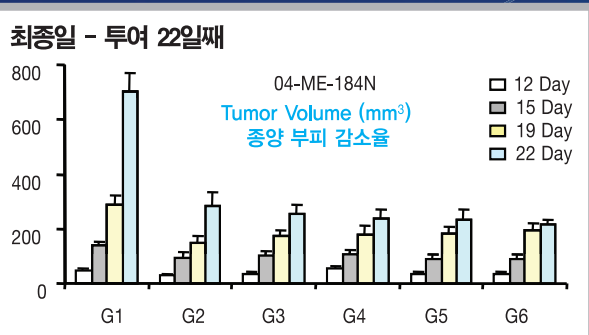
복용 후 5일 11/5/2013
복용 후 25일 11/25/2013
복용 후 77일 1/16/2014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암 부위 감소율의 결과로 천연 치료제 미라팜-22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추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옆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 정부 인가 연구소에서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이며 미라팜-22를 더 많이 복용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 점 (213)365-2100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가수 현미와 함께 하는 고베펄 10주년 팬사인회에 진주보석이 가득!!!



국민 가수 현미 씨가 고베펄 사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LA 진주 보석소에서 사인회를 연다.

진주 전문 회사 '고베펄'이 올해로 1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 엘에이와 가든그로브에서 더욱 알차고 특색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고베펄 사는 이에 따라 이번 가을 어느 때보다도 알찬 기획과 어김없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고베펄 사는 이번에 한국의 국민 가수인 현미 씨를 엘에이 진주 보석 쇼에 초청해 팬사인회 등 전시장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 현미 팬사인회 진주 보석쇼

이번 진주 보석쇼는 고베펄 사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잔치이므로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진주 보석 쇼를 준비하고 있다. 5천여점 이상의 진주보석을 전시장에 화려하게 꾸민다. 정말 관촬은 진주보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비를 단단히 했다. 따라서 다양한 아이템이 준비된다니까 기대가 된다.

특히 이번 진주 보석쇼는 한국에서 예능 토크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고 있는 국민 가수 현미 씨를 초청해 사인회와 함께 전시장은 덕담과 넉넉함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 진주 보석쇼가 열리는

전시장에는 진주 비드 목걸이 등 다양한 스타일의 진주보석이 전시되는 가운데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보석과 홍산호 인공 핵진주 신제품도 대거 선보이며 최대 80%까지 무조건 대박세일을 펼친다. 그 어느 때의 진주보석 쇼보다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배가 될 것이라고 고베펄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행사는 LA와 가든 그로브로 나누어 개최되며 LA는 오는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올림픽 길의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에서, 가든 그로브는 다음날인 13일 단 하루 라마다 플라자 호텔 2층 퍼시픽 룸(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열린다. 그리고 일요일인 14일 하루는 벌몬 갤러리아 고베펄 매장에서 이번 진주보석 쇼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물론 현미 씨의 사인회는 엘에이 로텍스 호텔에서만 펼쳐진다. 이틀간 사인회를 갖는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다.

■ 와이어(Wire thread)가 대체 학 스타일로 통해

진주 목걸이도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 실로 진주를 엮은 것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실이 아닌 소량의 철 성분이 입혀진 와이

어가 대체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모두 와이어로 세공된 고베펄 사의 제품들은 한국의 세공 기술로 엮은 최신 공법의 와이어 진주 목걸이이다. 철 성분이 들어간 와이어를 사용해 진주 목걸이를 비드로 엮을 때 알 사이에 실이 보이지 않아 매끈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보석으로서의 제품도 살리고 실처럼 쉽게 늘어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진주 목걸이를 화려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단아함에서 우위를 점하는 빼어난 세공 기술이 어느 보석상도 따라올 수 없는 고베펄 사의 노하우이기도 하다. 외출하기 위해 착용 시 날씬한 느낌을 쥐 '학 스타일'로 이제는 통하고 있다. 엘에이는 물론 뉴욕 버지니아 등 한인 여성들은 현재 고베펄 사의 '학 스타일' 진주 목걸이로 멋을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미 씨의 사인을 받고 다양한 진주 보석들의 은은한 향연을 몸소 느껴보고 싶다면 오는 9월 11일부터 양일간 로텍스 호텔에서 고베펄 사가 주최하는 진주 보석쇼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을 성 싶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고베펄 사의 진주보석 쇼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 가을 겨울 진주 보석 관리법은?

가을 겨울에도 진주 보석 외출은 멋내기엔 적합하다. 멋진 진주목걸이 외출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진주목걸이는 어떤 것을 고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고베펄 사의 당부는 이러하다. "진주 관리를 잘 하는 것은 그만큼 진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유기 물질이기에 쌀쌀한 날씨일지라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와 같은 진주 보석은 고가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잘 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한다.

진주 보석도 다른 보석들과 마찬가지로 물과 열 그리고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철에 자주 다니는 사우나나 찜질방에 갈 때 착용했던 보석들을 먼저 집 화장대에 빼놓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는 것. 진주 보석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손질과 관리가 필요하다. 진주에 산성분의 땀이나 주스 등 음류수가 닿으면 부드러운 천으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변색을 막을 수 있다.

화장품 성분에도 진주는 민감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외출 시 향수나 스프레이를 사용한 후에는 충분히

마른 다음에 진주 보석류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진주에 땀이 묻어있다고 수돗물로 닦으면 안된다. 먼저 헤어용 올리브 오일을 부드러운 헝겊에 약간 적셔서 닦아주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이다.

고베펄 사의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고베펄이 현미와 함께 하는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 2일간
2014년 9월 11일(목)~9월 12일(금)
행사 장소: 로텍스호텔 2층 연회장 Rotex Hotel Banquet 2nd F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19

가든그로브 일정 단 하루
2014년 9월 13일(토)
행사 장소: 라마다 플라자 호텔 Ramada Plaza 2층 Pacific Hall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92844

고베펄 벌몬 갤러리아점 단 하루
2014년 9월 14일(일)
행사 장소: 벌몬 갤러리아 1층 Vermont Galleria Market Kobepearl store (5가와 벌몬) 440 S Vermont Ave. Suite #110 Los Angeles, CA90020
▲문의: (213) 389-3887
▲웹사이트: www.kobepearl.com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21cmi.com 을 방문하세요

이단논쟁
믿을 수 있나?
자자 | 조병철 (미장로교 목사)

이단논쟁
믿을 수 있나?
자자 | 조병철 (미장로교 목사)

- 영락, 새문안교회 부목사
- 한경직목사 기념교회 초대목사
- LA 빌리그레함 전도대의 한국교회 대표
- 컨템포러리 목회원 원장
- 한양공대 회공과, 장신대, 유니온 신학대학원 구약전공
- 일파코스 교재번역 및 한국어 소개약 100만명 참여
- 미주목회 33년

교회리더들에게 영성형성의 기본을 이해하게 하고 오아시스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 김찬도 목사

한국교회의 이단논쟁에 규범을 제시한다!

- 비판자들이 근거로 삼는 57지 해석 오류
- 은사가 종료나, 계속이나?
- 이단대책 위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67지 어휘들
- 역사적 주류교단에서의 은사 이해
- 존 맥아더의 시한부 은사론 반박
- 정통교리와 정통살행
- 믿을 수 없는 이단사상문들(한국, 미국)
- 은사의 위험과 남용
- 예언은사의 중요성
- 다윗의 장막

필박받는 리더들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변론

-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개혁운동
- 마이클 비클의 HOP / 엘리야 기도운동
- 손기철 장로의 치유서역
- 김기동 목사의 뵤리아 사상
- 최비울 선교사의 인터넷
- 박윤식 / 윤석진 / 예태해 / 변승우
- 일파코스 (세계 주류교단 포함, 150여 교단 1,800만 참석)
- 이명범 목사 (트레스 디아스 - 세계 주류 교단에서 실시, 대도시에서 교단 연합으로 실시)
- 조용기 목사

구매안내 *NY(할렐루야 서점) LA,OC(기독교서점과 일반서점)
LA지사 : 책값 + 송료 = \$29.95을 아래 주소로 보내세요. 수표에 CHO 라고 쓰세요
217 S. Serrano Ave. #9 LA, CA 90004 컨템포러리 목회원 213-380-3398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성시화 치유 부흥성회

도시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성시화 치유 부흥성회

healing

목,금,토는 한어와 스페인어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히스패닉 가족분들을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브라질 선교사



강사 | 원준상 선교사

1차 2014/9/11-12 (목,금) 저녁 7:30분 한어,스페인어통역

나성 동산교회 (한기형 담임목사)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 (213) 487-3920

2차 2014/9/13 (토) 저녁 7:30분 한어,스페인어통역

Angelica Lutheran Church (Carlos Paiva 담임목사)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 (213) 382-6378

3차 2014/9/14 (주일) 오전 10:45분 한어,스페인어통역

Iglesia Sunkist Church (Jorge Herrera 담임목사)
701 S. Sunkist st. Anaheim, CA 92806 // (714) 635-3330

4차 2014 / 9/14 (주일), 오후 2시 한인대상

UBM교회 얼바인 in Newsong (앤드류김 담임목사)
18842 Teller Ave, Irvine, CA 92612 // (714) 600-7700

LA땅과 히스패닉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기적의 치유집회

[최덕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③ 마리아 숭배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는 로마가톨릭교회(2)

6. 이교 배경과 관련성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끝난다.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기간과 그 뒤 얼마 동안,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없었다. 4-5세기까지도 마리아 축제라는 것이 없었다.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없었다. 마리아를 칭송하는 신학 이론도 없었다.

핍박기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391 AD)되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마리아 숭배 행습이 나타났다. 창검의 힘과 위협에 놀려 형식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들, 중생 체험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옛 종교의 여신들(female deities)을 예배하는 자신들의 풍속을 기독교 안으로 가져왔다. 마리아를 '항구적 동정녀'로 생각한 알브로사우스, 제롬, 어거스틴도 마리아에 대한 공경심이 자칫 이교의 모신(母神) 숭배 신앙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모신숭배 행위는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에서 나타난다. 아르테미스(Artemis), 데메터(Demeter), 아프로디테(Aphrodite), 로마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Diana), 세레스(Ceres), 비너스(Venus) 등 여성 신 개념은 바벨론에서 왔다. 바벨론은 이 땅 '최초의 왕'의 아내인 이스타르(Istar)를 '위대한 어머니'로 숭배했다. 서양 세계에 기독교가 번영하면서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은 마리아 공경과 숭배로 대체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던 여신 아스다롯 숭배(삼상 7:3, 4; 왕상 11:5, 33; 사 2:13, 10:6)가 기독교 형태로 옷을 갈아입었다.

어느 로마가톨릭교회 학자는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에베소라고 주장한다.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행 19:27, 35)에 대한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곳이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예수의 위격(位格)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에 번창하던 헬라주의 여신 개념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웅장한 교회당 모자이크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묘사했다.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기오레대교회당 벽화는 마리아를 이교 여성 모신(母神) 형태로 표현한다. 마리아상에는 이교 여신들의 옷과 장식이 달렸다. 바벨론 여신과 동일한 모습의 하늘의 여왕으로 묘사되었다. 바벨론 어머니와 아기에 대한 예배 형태가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났다. 마리아와

어린 예수를 함께 묘사한 그림들은 모자(母子)를 그린 이시스와 호루스, 퀴벨레와 아티스 그림과 동일한 형태였다(Erich Bruning, Project Einheit, 2004, 40-41). 여신을 숭배하던 종교 건축물들이 우뚝 솟은 것처럼, 큼직한 마리아교회당, 마리아 기념 채플이 건축되었다.

주후 5-6세기에 이르러 서방교회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마리아를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자'로 해석했다.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과 동격으로 간주할 정도로 높은 공경을 바쳤다. 마리아에 대한 공경 의식은 5세기에 나타났다. 마리아 축제는 7세기, 마리아 무후(無欠) 잉태설, 곧 원죄가 없다는 사상은 12세기에 각각 등장했다. 마리아 승천교리는 15세기 신학 논쟁의 주제였다. 동정녀 마리아의 우주적 권위는 그가 지상의 생을 마칠 때 몸과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신앙에서 극대화되었다. 그 무렵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등장했다. 서양 중세인들은 사실상 마리아를 포함한 '성사위일체(聖四位一體)'를 믿었다. 마리아는 존경, 흠숭, 공경의 차원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서양 중세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강조했다. 십자군 원정을 치를 서방세계의 신앙은 더욱 감정적으로 변하여, 인간 예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이 구원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였다.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는 대단한 호소력을 지녔다. 죄인을 위해 마리아가 아들에게 동정적 탄원을 하면, 그러면 무서운 죄와 비열한 허물도 모두 용서한다고 믿었다. 아들이 어머니의 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대와 그 이후, 마리아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 19세기에 105차례, 20세기에 430차례 나타났다. 모두 여성의 환영(phantom)으로, 광명-빛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였다고 한다.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한다(고후 11:14). 유럽연합 기(旗)에 새겨진 열두 별의 왕관은 열두 별이 달린 왕관을 쓴 '하늘의 여왕(계 12:1)', 곧 국가와 종교와 세상의 통합을 상징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마리아 신앙은 이처럼 이교의 텃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일부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은 로마교회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Regina coeli)', '공



최 덕 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동 구속자(Coredemtrix)', '은총의 중재자(Mediatrix gratiarum)' 같은 칭호들로 치장하는 행위를, 그릇된 신앙심의 결과이며 계도를 이탈한 무절제한 짓이라고 본다(Rene Laurentin, Kurzer Traktat der Marianischen Theologie, 1959, 101).

7. 마리아 교리와 교회일치운동

한국 천주교 교의학자 심상태 교수(수원가톨릭대)는 에큐메니칼 운동 맥락에서 마리아 교리에 대한 의의를 제기한다. 그는 마리아 숭배 또는 공경의 타당성을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온 인류와 세계를 위한 구원 사적 기능을 수행한 데서 찾는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에 어머니로 참여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자의적으로 적극 협력했으며, 자유로운 신앙과 순명(順命)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했다. 따라서 교회가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바치는 공경인 흠숭지례(欽崇之禮)보다 낮으나 일반 성인들에게 바치는 공경지례(恭敬之禮)보다 한층 높은 상경지례(上敬之禮)로 마리아를 각별히 공경함이 지당하다고 주장한다(심상태, 가톨릭의 교회 일치적 마리아론, <사목> 244, 1999.5., 21-55).

심상태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그리스도를 잉태했으며, 사망 즉시 승천했다고 하는 로마가톨릭교회 교리는 공의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황이 '특수 교도권'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말한다. 이 지적인 마리아 교리에 대한 심상태의 부정적 관점을 암시한다. 그는 마리아에 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비판적인 아래 글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다.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교회를 위해서 전구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물리쳐야 하고, 사탄의 어마어마한 힘과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다. 마리아가 이를 행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필요인가? 마리아는 온갖 최고의 찬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하나 그리스도와 똑같이

간주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신앙과 겸손의 모범을 따를 것을 원한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과장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서야 할 자리에 마리아가 대신 들어서게 된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마리아 교리를 문제 삼지 않은 채 사실상 인정하는 형태로, 로마가톨릭교회와 가시적 교회일치를 추구해 왔다. WCC 역사에서 마리아론이 쟁점으로 전면에 부각된 적이 없다. 마리아론을 부정적으로 다룬 문서도 없다. 더구나 마리아 교리에 우호적이다. WCC의 '하나의 신앙고백(1990)'은 에베소공의회(431)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의탁, 그녀의 활동적 신앙의 반응, 그리고 그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교회의 유형(typos)과 모범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한다.

WCC는 개종전도금지주의와 관련하여 회원교회들에게 로마가톨릭교회의 마리아 숭배 행위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 WCC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마리아론을 옹호한다. 고대 교회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규정했고, 개신교회, 정교회, 로마가톨릭교회가 모두 성육신의 신비에 신앙을 두고 강조하므로 "마리아 숭배가 미신이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Rita Turner, Mary in the Ecumenical Movement, 1991, 668)"고 한다.

WCC 관련 문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마리아론'은, 마리아 교리에 대한 이 단체의 우호적인 태도와 신념이 "로마가톨릭교회와 대화를 한 결과"라고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마리아가 유용한 촉매 역할을 하며", 이로써 "상호 두려움이 잠재워졌고, 공동의 광장이 옴터 나왔다"고 말한다. 동방정교회가 나뉘는 마리아 전통을 주장하지만, 서방교회 경우처럼 교리적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 마리아론을 특별히 공식적으로 교리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실제로 에큐메니칼 토론에서 제기되는 논쟁점은 마리아론 자체의 내용보다, 오히려 그와 관련된 계시의 정통성 문제, 그리고 교황의 절대 무류성에 관한 교회의 권위 문제"라고 지적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교리를 계급화한다. '더 중요한 교리'와 '덜 중요한 교리'로 나눈다. "가톨릭 교리의 여러 진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 이루는 관계는 서로 다르므로, 교리를 비교할 때에는 진리의 서열 또는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

다(일치교령 제11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90조)"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는 높고, 연옥설이나 마리아론은 낮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형기 교수는 로마가톨릭교회와 WCC의 외형적 교회일치를 긍정적으로 본다. 가톨릭대(가톨릭신학회)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쓴 논문(2009)에서 로마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진리들의 위계'를 근거로, 로마가 개신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계급이 낮은 일부 교리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가장 높은 꼭지점에 두고, 비(非)로마가톨릭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개신교회)이 고백하는 교리와 불일치하는 연옥설, 마리아론 같은 위계가 낮은 자리에 있는 교리들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다(이형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로마가톨릭교회의 에큐메니즘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연구: <신학사상> 64, 2009 겨울, 236).

로마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낮은 계급에 해당하는 교리라도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진리들의 위계'에 대하여, "모든 계시된 교의는 같은 신적 신앙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교회에 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가톨릭 교리 선언, <사목> 34, 1974.7., 125)"라고 못 박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일치교령'은 진리들의 위계질서에 대한 배타적 원칙을 담고 있다. 진리들의 "서열은 어떤 교의가 다른 교의에 의거하거나 다른 교의에 의해 설명된다"고 한다(일치교령 제11항; 앞의 글 125). 마리아에 대한 흠숭, 상경, 공경이라는 위계로 구분되는 교리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맺음말과 질문

마리아는 마리아 교리에 크게 진노하리라. 그 교리는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구속 사역을 격하시키며,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방식으로 마리아를 모독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행위,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우상숭배이다.

마리아 교리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마리아 교리와 숭배는 로마가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려고 목인, 수용, 교리화한 이교 사상이며 미신적 행습이다. 화체설, 희생제사 이론, 연옥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인숭배 등과 더불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교리이며 종교행위이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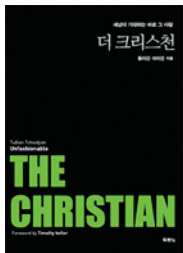


신간추천

더 크리스천

틀리안 차비진 | 두란노 | 296쪽

「Jesus All」, 「은혜의 순간」 등을 쓴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책에서 세상이 기대하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태도와 방향, 행동 변화를 불러 일으키려 한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거스르는 'THE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한다.



십자가와 나

F.J. 휘겔 | 생명의말씀사 | 176쪽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는 고전. 남아메리카 전역을 순회하며 선교했던 저자는, 명확한 성경 해석과 깊은 간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할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고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을 더욱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풍성한 삶의 기초

김형국 | 포이에마 | 554쪽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저술하기도 했던 저자가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세로 사는 원리와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일대일로 12주간 매주 읽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난 14년간 저자가 교회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담았다. 읽기 전 '실패하는 7가지 비책'과 활용법도 살펴 보시길.



임락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

임락경 | 홍성사 | 464쪽

<시골집 이야기>와 <비워야 산다> 등을 쓴 저자가 한 잡지에 '한국 신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4년간 40차례 연재한 글을 보완하여 엮은 책. 이 양원을 세운 최흥종 목사, 동광원의 이현필 선생 등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실로 예수를 믿고 살려던 이들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증언했다. 유명모·강원용 등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들도 있다.



REVIEW

은혜의 복음을 더 생생히 전하게 하는 독서

설교자와 독서, 그 벽차고도 아름다운 밀월 관계 <설교자의 서재>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미국에서 '설교를 위한 독서 세미나'를 열고 있는 저자는, 책에서 목회자들을 향해 "(설교에 세속의 불순물이 섞일까) 두려워 말고, 작가들이 안내하는 다양한 세계에 발을 담그라"고 권한다.

저자는 설교에는 기초가 되는 성경과 두꺼운 신학서적들 못지 않게 (좋은) 소설과 시, 전기, 심지어는 종이신문이나 인터넷의 기사들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창조적 설교'에 유익이 되는 '일반 독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목회자들을 향해 "죄책감 없이 이런 독서를 즐기라"고 말한다.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설교하는가?" 1장부터 도발적인 질문이 시작된다. 저자는 둘 중 어느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어느 쪽이든, 설교자는 다른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좋은 설교가 지니는 힘은 이러한 설교의 진정성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진정성 있는 설교는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헌신한 설교다." 독서는 은혜의 복음을 더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드는 도구이지, 세련미와 품위로 설교자나 청취자의 지적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독서는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장치인 '예화'에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저자는 예화를 '찾기' 위한 독서가 아닌,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한 차원의 독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서를 통해 기쁜 생각의 힘은 주변 일상에서 '설교의 소재'를 얻을 수 있는 관찰력과 주의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 설교자들이 언제까지나 찾아 헤멜 '창조적이고 신선한 또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화'는 이렇게 탄생된다. 단,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어떤 예화

를 어느 만큼 적용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해야 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

'목회자'라는 제한된 삶을 사는 설교자에게 독서는, 특히 '삶의 다양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교회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 같은 이야기도 제각각 다르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설교자는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하고, 이 복잡다단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택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할 지혜를 얻어야 한다.

"설교자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어 놓고, 세상에 입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대해 온통 궁금증을 품게 만들어야 한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속의 초자연적 이야기가 담긴 초자연적 책이다. 초자연적



설교자의 서재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복있는사람 | 226쪽

이해와 기대가 없는 설교자는 실망스러울 만큼 말라빠진 하나님에 대한 껄뻔한 복음을 설교하는 데 그칠 것이다."

저자는 독서의 중요성뿐 아니라 설교에 있어 화법이나 서사 구조, 단어 선택 등을 조언하기도 한다. 또 '지혜

의 창고'인 성경 다음 가는 '종량급 지혜'를 독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경험담도 전하며, '죄와 은혜'에 대한 개념들이 흐릿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읽었던 책들만큼 이를 설명하기 좋은 도구가 없음도 피력하고 있다.

굳이 설교자가 아니라도 부담이 가질 않는 내용들이다. 읽고 나면, 이 책 자체가 '독서의 유익'을 보증하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독서량이 쌓이면 이렇게 매혹적 글쓰기도 가능해진다는 말일 테니.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나 <에덴의 동쪽>, 서머셋 모ムの <인간의 굴레> 등은 꼭 읽어봐야 할 것 같고, 이외에도 영미권 위주의 책이긴 하지만 저자가 진행했던 독서 프로그램 도서 목록들을 열거해 놓았다.

책은 저자의 '워킹드 강좌' 강연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원제는 'Reading for Preaching' 이대웅 기자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美 기독교가 대중문화 영향력 상실한 이유 ‘그들’이 없었기 때문”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jamesdavisonhunter.com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역사에는 ‘그들’이 있었다. ‘부, 권력, 문화 엘리트’, ‘황제의 아내와 딸들’, ‘부유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교부’, ‘이교도 철학에 뒤지지 않는 학문적 결과들을 생산해내는 학교들’ 등이 바로 ‘그들’이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James Davison Hunter)의 저서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와 관련해 현대기독교연구원(원장 김동춘 박사, 이하 헌기연)이 지난 25일 서울 창천동 하나교회에서 개최한 공개 세미나를 위해 발제문을 낸 이주일 연구원(헌기연 연구원)은 먼저 “헌터는 종교사회학과 문화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학자로서 ‘문화 전쟁’, ‘복음주의’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종교와 사회 및 문화를 분석해 왔다”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는 제임스 헌터의 저작 중 가장 최근(2010)에 출판된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자면, 기존 미국 기독교 진영(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 신세세레파)의 문화 변혁 전략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이며 진정한 문화 변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헌터에 따르면 기독교 진영의 문화 전략 이면에 전제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일 연구원은 “헌터에 따르면 오늘날 기독교 일반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마음과 정신(hearts and minds)’(21p)이 가장 중요한 문

화적 독립변수라는 견해다. 즉, ‘문화는 대다수의 사람이 보유하는 가치와 이런 가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선택의 집적(accumulation)으로 구성된다’(22p)”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찰스 콜슨(Charles Colson)의 사례는 대표적이다”고 했다. 찰스 콜슨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법률 고문으로 일하며 정치적으로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으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때 세 사람의 상원의원 헤트필더, 휴스, 쿼에 의원이 투옥된 찰스 콜슨은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감옥으로 그를 찾아가 위로하며 책을 전해 주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람들이다. 쿼에 의원은 콜슨을 대신해 옥살이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생겨, 특수법조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형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된 사실을 알아내 법원에 청원하기도 한다. 그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들은 콜슨은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형기간 동안 동료 죄수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기도하고,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래도 자진해서 하자 처음으로 의심하던 이들도 하나 둘씩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후에는 함께 기도 모임도 시작하고 교제도 나누며, 콜슨은 평생 죄수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다. 형을 마치고 나온 콜슨은 ‘ 거듭남(Born Again)’이라는 책을 저술해 미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그의 결심대로 1976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기도 한다.

이주일 연구원은 헌터의 의견을 정리하며 “콜슨은 세계관이 역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세계관의 변화와 실천이 문화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했다”며 “따라서 세속화된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평범한 개인들의 세계관이 먼저 바뀌어야 하며 그 결과 평범한 다수의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터는 이런 관점이 찰스 콜슨만이 아닌 가톨릭교회(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신교회(제임스 톱슨), 심지어 미국 계몽주의(토머스 제퍼슨)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한다”며 또 “이런 관점이 개신교만이 아닌 가톨릭에서도 발견된다”며 “복음주의

자들은 이런 관점에 따라 전도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여 개인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문화를 변혁시키기 때문이다(제임스 보이스,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이엄, 오스 기니스)”고 말했다.

그러나 “헌터는 개인의 마음과 정신을 강조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문화 변혁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오늘날의 미국인 86-88%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미국의 문화(사업과 문화, 법과 정부, 학문 세계, 대중오락-40p)는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경향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일 연구원은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가장 열정적인 종교생활을 해온 다수는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룹이지만 헌터에 따르면, 이들의 영향력은 지난 2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특히 사상과 상상력의 영역’(41p)에서 더욱 그랬다. 반대로 유대인 공동체나 동성애 공동체는 각각 미국 인구의 3.5%, 3%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터는 실패의 진정한 원인이 독일 계몽주의를 거쳐 플라톤에까지 소급되는 ‘관념론’(idealism)적 문화이론을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며 “관념론적 문화이론이란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 요인을 관념으로 보는 이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좌파와 우파, 신세세레파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과도하게 정치화된’ 패러다임과 방법론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문화 변혁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일 연구원은 “헌터가 제시한 새로운 문화이론에 따르면 ‘전도, 정치, 사회 개혁, 창작’(79p) 등은 문화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며, 문화의 중심에 있는 엘리트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영향이란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 그래서 19-20세기의 금주 운동, 20세기 기독교 우파의 동성애, 낙태, 포르노의 합법화 저지 운동 등은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실패했으며,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문화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경건한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은 세속화의 중심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터가 제시한 새로운 문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의 저서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이론은 역사적 증거를 통해 뒷받침된다”며 “기독교는 초기 3세기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종교로 성장했는데, 이 성장은 유대교 디아스포라 회당과 그리스 로마 제국과 연결된 도시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졌다. 교회의 지리적 중심은 제국의 중심인 로마였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부, 권력, 문화 엘리트에 의존하여 성장했다. 황제의 아내와 딸들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우호적이었고, 대부분의 교부들이 부유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부분의 교부는 상당한 수준의 지성인이었고, 학교를 설립하여 수준 높은 지적 교육을 진행하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이 연구원은 전했다.

덧붙여 “2세기에 초기 교부들이 세운 학교들은 그리스 철학을 활용하여 이교도 철학에 뒤지지 않는 학문적 결과들을 생산했다. 그 결과 3세기에 당대 최고의 철학적 지성들은 기독교를 진지한 비판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며 “300년대 후반에 이르면, 기독교의 주교들은 대체로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로마제국의 교육제도인 파이데이아(paideia)를 경험한 철학자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 존경을 받는 자였고 정치적 자율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헌터에 따르면, 고대 말에 기독교는 수도사와 수도원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수도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대중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지위는 파이데이아와 그것이 섬기던 권력구조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었다’(96p)”며 “수도원 운동의 특징으로는 첫째, 수도원은 학문의 중심지로서 서구 세계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담당하는 중심지였다. 둘째, 수도원은 ‘복음화의 전진기지’(99p)였는데, 수도사들은 평민보다 지방 지역 귀족들의 복음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럽 주요 지역의 기독교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선교사들이 지주 귀족들의 물질적 지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주교나 수도원 원장들은 주로 부자나 귀족 출신이었는데, ‘그 시대의 거의 모든 용감한 성인들은 부자나 귀족 태생이었다’(101p)”고 소개했다.

이주일 연구원은 “헌터는 야만족이었던 유럽의 개종이 ‘교회가 지적 문화적 생산의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중첩되는 엘리트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사회적으로 당대의 일급학자들이었으며 중세 스콜라주의의 대가들이었다. 루터와 칼뱅, 멜랑히톤과 베자 등은 당대 아카데미 속에 있던 신학자들, 교수들, 학생들의 넓은 네트워크 속에 있었으며, 특히 베자의 제네바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개혁주의 아카데미와 대학이 스위스, 프랑스, 독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덜란드에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네트워크는 종교개혁 사상의 급속한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또 “정치적으로 신성로마제국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많은 귀족들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제국의 권력은 종교개혁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16세기에 팽창하던 국제교역은 새로운 대안적 상업 엘리트들을 출현시켰으며 이들에 의해 도시와 마을은 정치적 자율권과 부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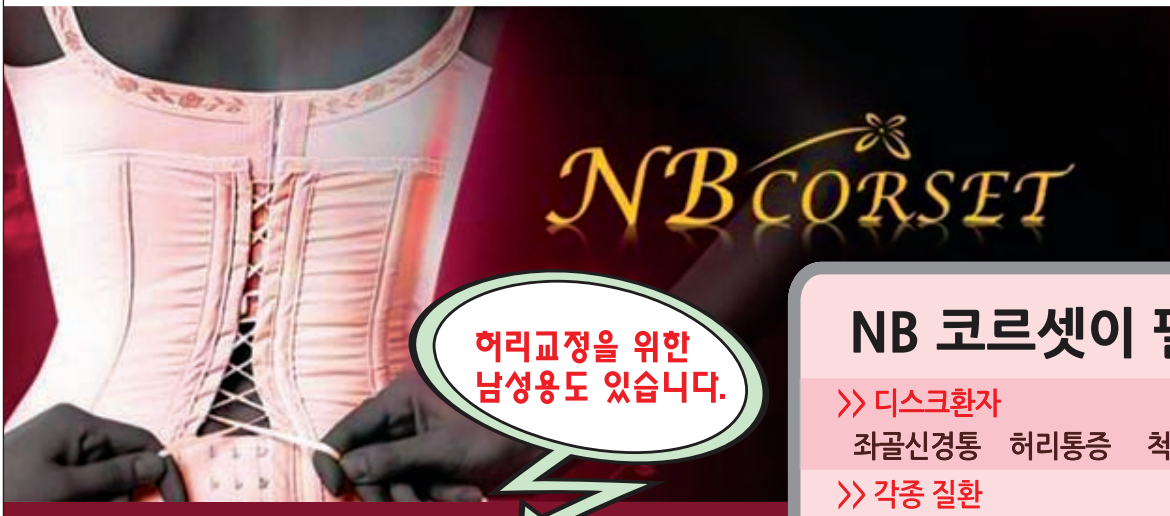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금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금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잘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3개월 \$60**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Genesis 3.8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불탄 예배당에서 들려온 음성 “교회 아닌 천국의 빈자리 채워라”

“천국의 빈자리 채우기 운동” 벌이는 이진휘 목사

크리스천의 특권이자 의무.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거나,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어떤 크리스천은 두려움을 느끼나, 어떤 크리스천은 기쁨과 은혜로 담대히 한다.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이는, “좀 조용히 믿으면 좋겠는데 자주 와서 말을 걸고 귀찮게 한다”고 불평하며 “제발, 이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게 뭘까? 전도다. 크리스천에게 이처럼 친밀한 단어도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전도의 종교라 불리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 안에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픈 마음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전도를 가깝기보다는 ‘땀’ 단어로 여긴다. 전도의 열정이 식은,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를 수 있을까?

전도 열정 잃은 오늘날 교회 향해 주의 음성 전하다

“89년 8월에 교회를 개척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교인이 모였다. 어느 날 새벽 1시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 부리나케 달려갔다. 소방관이 ‘안에 사람이 없냐고 물기에 없을 거라고 답했다. 그러나 소방관은 불이 덜 꺼졌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소방관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불바다에 뛰어드는데 전도자의 모습이 저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불이 다 진압됐다. 불이 꺼지니 홍수가 난 것과 다름 없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 그때, ‘교회 빈자리를 채우지 말고 천국 빈자리를 채워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 전에는 열심히 천국의 빈자리를 채웠는데 목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천국의 빈자리 채우는 운동을 펼쳐라’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때 이후로 계속 집회를 열었다. 천국의 3천 명이 넘는 목회자, 6만 명이 넘는 평신도를 훈련시켰다. 교회마다 외치고 싶은 게 ‘교인을 빼앗아 오는 쟁탈전 벌이지 말고 천국 자리 채우자’라는 말이다. 집안 싸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이너스다.”

전도는 어렵지 않고 쉬운 것 이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뤄져

전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예수님은 전도를 ‘추수’라고 표현한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거

뒤들이듯 무르익은 영혼, 예비된 영혼이 있다.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게 전도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13:48),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더라’(행16)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전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담겨있다. “진정한 전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다 포함된 것이다. 단지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전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 이게 실행되면 세계복음화가 이뤄진다. 이것을 각 교회에 전하고 싶다.”

복음 전하는 친구 입 틀어 막았지만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까지의 신앙 여정을 풀어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것은 78년도 8월 23일이다. 그 전에 몇 번 교회를 나간 적은 있지만 무신론자로 나 자신만 믿고 살았다. 군대 호송열차를 타고 가던 중, 복음을 전하는 한 친구를 공격했다. 그가 워낙 말을 잘해 말로 이기지 못해 그의 입을 막았는데 순간 강한 힘이 느껴졌다. ‘이상하다. 뭐가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수용연대에 도착해 교회에 들어갔는데 설교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이후 계속 교회를 다녔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었다. 그때 환경직 목사님의 설교집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접했다. 첫 장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란 주제였다.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면 믿을 수 있느냐’라며, 강, 산, 바다, 땅, 지구, 우주가 그냥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만지가 모여 시계 부속품이 만들어지고 그 부속품이 우연히 조립되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계가 됐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내용이였다. 그것을 읽고 내무반에서 나가려 문을 연 순간, 눈 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편 말씀처럼 나무가, 새가, 만물이 찬양하고 있었다.”

8km 구보 중 의식 잃고 쓰러져

하나님의 창조는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대대별 전투력 측정을 하는데 전투력 측정 대원으로 내가 선발됐다. 전날 밤 대대장이 회식을 시켜줬는데 그만 먹은 게 체해 구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중대장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빠질 수 없었다.”

“나는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 잊고 단숨에 8km를 뛰었는데 호흡에 문제가 생겼다. 다시 뛸 때, 한 병사가 욱하며 나를 잡아챘으나 거기에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다시 나를 잡아채 넘어뜨리자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 ‘저 병사를 잡아서 개머리관으로 치리라’ 다짐하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졌다. 허가 안으로 말려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죄 가운데 있으니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순간 주님이 자신을 찾아왔고, 주님은 그에게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상이 하나도 없네요 세계 기회를 주세요

주님을 영으로 영접한 후 자신의 몸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오는 것을 느낀 그는 천국의 광경을 봤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온갖 보석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진주가 영롱한 빛을 발했다. 천사들이 환영하며 찬양했다. 그러나 천국에는 들어갔는데 상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상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세계 기회를 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6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날 때 방언 찬양이 나왔다.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면 매일 하루 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제일 많이 영접시킨 날은 하루에 32명이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를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 재충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도의 방해물은?

그에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방식에 대해서도 물었



이진휘 목사

다. 그는 그 열정은 높게 평가하나 다들 지쳐 있는 퇴근시간에 요란하게 전도하는 방식은 지혜롭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닫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교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신자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라 지적하며 “그들은 아주 냉담하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답했다.

자살 앞둔 영혼 살려내기도

포항에서 전도집회를 열었을 때, 자살하기 직전의 영혼을 전도하기도 했다. 전도팀과 전도실습을 하던 중 한 남성을 만나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더니 방언이 터졌다고, 죽을 땀인데 살아나게 됐으며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 싸움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교도소에서 1년 살다 나온 상태였고 게다가 아내가 집 전세금을 빼서 도망가 아무 소망도 없어져 자살하려 했던 자였다.

정말 행복하길 원하면 전도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 때는 없었는지 묻자, 그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오히려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깊이 느끼며 산다. “전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수고

했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게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데 있다.”

꿀방은 문제해결의 장 꿀방 확산되면 세계복음화는 임박

“꿀방” 전도의 “꿀방”은 전도하기 위해 구성된 소그룹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영적인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여기에 초청되면 모두 해결 받는다. 즉 꿀방은 문제 해결의 장이며, 꿀방이 확산되면 천국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꿀방전도 집회에 참석하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도집회 참석자들은 전도를 쉬운 것이라 고백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는 올해 4월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3일간, 7월에는 3주에 걸쳐 꿀방전도집회를 했고 앵콜 집회를 3주간 했다. 세계등대교회에서 일일집회, LA비전교회에서 3일 집회를 했다. 9월에 6일 한국으로 귀국해 서울 주님의영광교회에서와 온누리교회(화곡동), 부산 양문교회에서 집회를 열고 10월 중순 다시 미국에서 주님의영광교회와 LA비전교회에서 꿀방사역을 통해 미국에 전도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계획이다.

한 주디 기자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10억 인구중 5억 8천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한 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만도 1,500만명에 이릅니다.

Good Neighbors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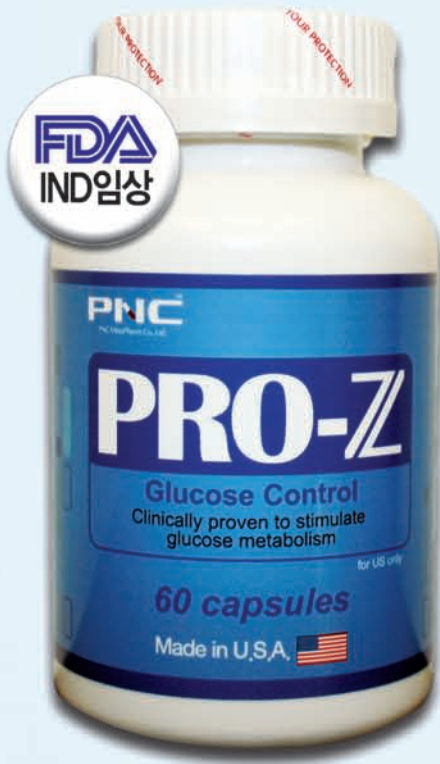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써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과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